

데이브 매튜슨 박사, 그분은 어디로 오시나요

? 세션 3,

바울 의 가르침에서 재림의 지연

© 2024 데이브 매튜슨 (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Dr. David Mathewson이 '그분은 어디로 오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션 3, 바울의 가르침에서 재림의 지연.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서를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 세상의 종말, 종말에 그분의 강림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했음을 암시하는 몇 가지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좀 더 바람직하고 예수를 잘못된 선지자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편지로 넘어가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종말을 예언하신 것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도 자신이 그러하다고 암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종말이 올 줄 알았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바울은 착각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사도행전의 특정 본문을 살펴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 책과 책 전체의 구조, 특히 한 구절에 대한 관찰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지연 문제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싶습니다. 파루시아 . 실제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24장 29절에서 장차 오실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제 그 명령이 다시 반복되어 제자들에게 약속의 영을 기다리라는 요청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명령이 성취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이 책의 구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된 영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전체 책의 기본 계획인 서론이나 대략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풀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까지 퍼져서 결국 사마리아에 이르렀고, 결국 이방인의 영토를 포용하기 위해 점점 더 작은 유대인의 영토로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책이 끝날 무렵 로마로 향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점은 이것이 예수님이 즉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는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기간은 거의 허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레이그 키너(Craig Keener)의 훌륭한 사도행전 주석에 의존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땅 끝이 단지 로마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로마로 끝나지만 키너에 따르면 그것은 아마도 지구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지구 종말의 시작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훨씬 더 널리 퍼진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요점은 사도행전 1:8이 오랜 기간의 지연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2,000년의 지연을 예상하지는 않지만 요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사도행전의 전체 계획은 복음에 필요한 지연 기간인 시간 경과 기간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나라에 퍼지게 하소서.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날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땅 끝까지 도달할 것인지를 다시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분의 왕국, 그분의 약속된 왕국을 전파하고,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결국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8과 실제로 사도행전의 전체 계획은 이 일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일정 기간을 허용하고 심지어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또한 신약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이 1년 안에 즉시 다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일생. 그러나 어느 정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파루시아 의 지연 문제 와 바울이 생각한 주요 신약 중 하나로 생각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길고 좋은 예이며 아마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세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서 저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생애 동안 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선 제가 집중하고 싶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한 문제, 즉 성, 결혼, 독신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Paul은 분기합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25절부터 32절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신실한 자가 의견을 말하노니.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남자는 그대로, 즉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묶여 있습니까? 석방되거나 이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결혼했다면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서 풀려났나요?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살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상한 결혼 조언, 울지 않은 듯 우는 자, 기쁘지 않은 듯 기뻐하는 자, 가진 것이 없는 듯 물건을 사는 자, 못 이룬 듯 세상을 쓰는 자 그것의 사용.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세상 일 곧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는 자 곧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결혼에 관련된 모든 것, 우리가 이러한 지침 중 일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던 세 가지 핵심 문구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의 생애에 즉시 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aul은 착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구인데, 26절에서 발견하는 현재의 환난은 현재의 환난으로 인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은 환난입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의 형태로 환난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재림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기근이나 일종의 박해 등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 당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일임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미래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특정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박해와 기근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삶이 가져오는 일상적인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때문에 그의 조언은 결혼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결혼을 낙담시키거나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의 고난 때문에 상황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독신의 이유로 현재의 위기나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이 언어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종말론적 언급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의 형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생활의 일부처럼 말이죠. 따라서 그것은 적어도 종말에 대한 예측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두 번째 문구는 29절에서 때가 짧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지금, 확실히 여기, 어디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끝내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결코 오지 않을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단어를 짧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hort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단축되거나 압축된 것을 의미하는 분사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미 마지막 왕국을 시작했으며 독자들은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0장 뒷부분과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세상 끝이 다가온 사람들로 묘사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문에 그들은 단지 그것의 마무리, 그것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에서 끝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간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로 인해, 여러분이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시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간이 단축되고 압축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당신은 긴급한 의미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미 종말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시간에 대한 관점이 되어야 하는 이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과 마지막 때를 시작하기 위해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관점에서 시간을 압축되고, 제한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시간은 평소처럼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정상적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시간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한정 계속되거나 평소처럼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고려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긴급성을 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요점은 우리가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예측하거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하거나,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거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 동안.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이미 종말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압축되고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는 데 긴박감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는 특히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설할 때 바울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31절에는 세상이 지나가고 있다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 곧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종말을 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형체는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앤서니 티슬턴(Anthony Thistleton)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말한 형태의 개념은 이 세상의 외부 구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현재 사회, 경제적 구조와 제도는 사라지고 있으므로 바울의 요점은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과 생활과 당신이 하는 일을 지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바울은 이 세상의 현재 형태, 이 세상의 구조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날 것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마지막 때를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현 세계와 그 구조, 제도와 가치가 이미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해체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바울은 이러한 진술 중 어느 하나로 종말, 현재의 고난, 단축되거나 단축된 시간,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추어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종말이 도래한다는 관점과 관점에서 그들의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예수께서 세상을 끝내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어떠한 정당성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텍스트에서는 순서대로 이동하겠습니다. . 제가 살펴보고 싶은 다음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특히 4장 13절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구절이 바로 이 장의 끝 부분에 있으며, 우리가 장례식에서 자주 읽는 구절 중 유명한 부활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15-17절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제 나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가 말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말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요 관심은 기본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 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과 다른 시대에 이미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1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we, 즉 1인칭 단수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 있을 사람들 가운데 자신과 그의 독자들을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파루시아의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파루시아(parousia),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비밀 휴거나 다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 있는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이 무리에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틀렸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쓴 몇몇 편지에서 그가 마음을 바꾸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통에 따르면 실제로 그의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은 노하심과 그분의 마지막 진노와 심판에 맡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는 그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즉, 불과 몇 구절 뒤에 바울은 자신이 잠들어 있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들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잠든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 살아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자신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장 뒤인 5장과 10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신이 살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든 자고 있든 죽어 있든 우리는 여전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바울이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파루시아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5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바울이 파루시아에서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는 자신이 아주 잘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종말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부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야 할 일은 그의 백성의 부활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종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부활은 바울의 생애 중에도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압축되고 단축된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정확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좀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그의 독자들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정확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일반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지막 것은 특히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같은 구절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그는 단지 자신을 가능한 유일한 범주에 두는 것입니다.

즉, 그가 살아 계시니 우리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더 고려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10장이 이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 있을지 죽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 있는 자들, 살아서 파루시아를 잘 볼 수 있는 자들, 곧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살아 있는 독자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5장 10절에서 그가 돌아올 때 그들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는 단순히 모른다. 그러므로 바울은 틀린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일어나지 않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신약성서 저자들과 함께 그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종말의 관점을 공유합니다. 죽음과 부활로 끝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사물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완성과 결론을 가져오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의 독자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살아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5장 10절에서 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 있든 죽었든 그들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바울이 반드시 그래야 하거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도 그분은 그들의 생애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적어도 그 구절들에서는 바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종말을 예측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다음 책은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2장 1-12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12, 그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하여, 오심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parousia)이며, 신학자들이 재림이라고 부르는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언급하는 데 일관되게 사용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예언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가 보낸 것으로 생각하는 편지로 말미암아 쉽게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말라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3절, 누구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날이 이미 다가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여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미래의 날을 가리키는 구약성경의 용어인데,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심판과 구원을 이루러 오실 때 곧 세상 끝이 이미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주의 날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으로 정해진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숭배의 대상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에 관해 너희에게 말하곤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를 막고 있는 것이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되 지금 그를 막고 있는 이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을 것임이니라.

그 때에 불법한 자나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리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멸하시며 강림하실 때에 그를 폐하시리라. 불법한 자의 임함은 사단이 온갖 거짓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모든 악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데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Paul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미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믿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논리는 이것이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 셋째,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날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확신하는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인들은 자신들이 주의 날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지적한 것, 바울이 지적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3절의 반역과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이 3절, 6절, 8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하는 자를 제거하는 일이 언급됩니다.

제지하는 자, 즉 불법의 사람을 제지하는 자입니다. 막는 자가 제거되면 불법의 사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주님의 날에 이르렀다고 속아서서는 안 됩니다.

자, 그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란입니다. 반란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역적인 일인가요? 그것이 온 땅에 널리 퍼져 있습니까? 이 반란은 종교적입니까? 정치적인가요?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누가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확신하는 다른 두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5절이 그 사건에 일종의 렌치를 던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 하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 즉, 바울은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했으므로 그들에게 상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며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이미 그들에게 말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처럼 그가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였지? 심지어 예녹서 93장과 9절과 같은 일부 묵시적인 작품에서도 배도가 널리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주요 요점은 Paul이 그것이 무엇이든 정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aul은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앞으로 나타날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가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되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읽으면 바울이 묵시적인 언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개인입니까? 전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가 자신을 세우는 성전은 문자 그대로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불법의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바울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Gordon Fee는 우리에게 많은 추측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그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과 관련하여 제지하는 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억제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옵션은 로마 제국, 법과 질서의 일반 원칙, 복음, 기독교인에 의한 복음 전파, 성령, 사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10장과 13절, 그리고 다니엘 12장과 1절을 근거로 대천사 미가엘을 옹호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십시오. 문제는 5절에 따르면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일들이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요점은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동안 그런 일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 동안 상황이 확대되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동안 지체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실히 바울은 어느 정도 지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아니면 우리가 살아 있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의 언어를 다시 취하지 않도록,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진술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즉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특정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실례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독자들이 주의 날에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즉시 재림하실 필요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연관시킬 때, 그들이 신약의 더 넓은 정경 내에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 있는 동안에도 살아 남아 있는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는데 이끌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는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줌으로써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날이 즉시 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요점은 데살로니가 독자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이것저것을 너무 빨리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어떤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불충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게, 불충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 빨리 돌아오도록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권의 책은 우리가 어느 시나리오에든 대비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 모두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그러나 바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실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울서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구절들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 구절들이 주요한 구절들입니다.

다시 한 번, 나는 바울이 말하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 동안에 독자들에게 즉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는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주 잘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 자신도 그 점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예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와 같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약간의 지연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둘 중 하나에 대비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그 어떤 것도 그분이 종말을 예언하셨고 틀렸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거기에는 바울이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으며 그의 생애에 있었던 일이 실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다음 강의 부분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유다서의 일종인 일반서신으로 알려진 여러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틀렸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자주 받아들여지는 그 책들에 나오는 여러 진술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특히 다른 모든 본문과 다른 일을 하는 한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서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는 지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독특한 텍스트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읽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그 구절에 있는 몇 구절과 몇 가지 진술을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의 약속을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라.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것을 쓴 이유입니다. 베드로서는 교회에 침투했거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는 신약성서의 수많은 책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이므로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성적 부도덕에 빠질 수 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당신이 책임질 심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주장을 분석하고 해체하여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3장에서 이것은 거짓 교사들을 반대하는 베드로의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글썄, 역사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역사는 평소와 같이 계속되었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지연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지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셨다는 사실, 미래에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독자들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할 일은 그 지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셨다는 사실이 그분이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지체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의 반응은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3장 4절은 이 문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강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오는가? 그는 약속했는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즉,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피터는 지연에 대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할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창조물을 만드실 때 개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물에 개입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응답은 8절과 9절, 심지어 10절에서도 발견됩니다. 먼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첫째는 천년이 하루 같으며,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연이 어떻게 설명되나요?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이 시간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순서나 순서를 경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의 영원한 현재로 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진술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저자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이 단순히 하루와 같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루와 천년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모든 것이 동일하며, 그분께는 모든 것이 영원한 한 순간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관찰을 Richard Balcom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은퇴한 신약성서 교수.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존재. 역사 전체를 한 번에 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한된 시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평균 수명이 대략 80년 정도이고,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우리가 시간을 50년, 60년, 70년, 80년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운이 좋다면 90이나 10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범위를 고려할 때 이는 여전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80년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역사를 볼 때, 몇 년이 걸리든 안 걸리든, 지연이 꽤 심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시는 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연으로 보이는 것이 그분께는 지연이 아닙니다.

그분이 시간을 보지 못하시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순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이 인간의 유한한 관점에서 시간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본다.

예, 아마도 그는 시간과 순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십니다. 그는 끝에서 시작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모든 역사를 영원하신 분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에서 있습니다. 그분께는 지체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답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대답의 두 번째 부분은 지연이 실제로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즉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고 바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은 단순히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연의 모든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지혜로운 목적과 주권 계획에 따라 그분은 인류에게 응답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즉시 돌아오시는 것을 지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수명이 약 80년인 우리의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 역사와 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연에 대한 가장 일관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분의 관점으로 모든 시간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작고 제한적이며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참을 수 없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개에 응답하시고, 회개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미루고 미루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고 자신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는 필요와 갈망에 응답하여 그분의 오심을 지연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베드로후서 3장은 지연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해하는 일부였으며 베드로 자신도 그리스도가 즉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분이 즉시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전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이로 인해 베드로는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데 고려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신약성경의 저자들조차도 어느 정도 지체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즉시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지체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곧 재림에 관해 훨씬 더 짧은 몇 가지 언급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곧 재림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진술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람은 Dr. David Mathewson이 '그분은 어디로 오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션 3, 바울의 가르침에서 재림의 지연.